



명사산과 막고굴 (둔황)

둔황의 새아침이 밝았다. 새벽 4시에 명사산의 일출을 보러 한다. 필자는 어젯밤에 2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걱정이야.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나가보니 구름이 가득이다. 그러더니 빗방울까지. 명사산 일출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모두 다 행이란 눈치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높은 구름이 조금 있는 파란 하늘이다. 호텔 방 뒤로 보이는 명사산이 마음을 급하게 한다(사진). '나는 기다리는데 너는 왜 오지 않냐'고 한다. 아무튼 바람이 불 때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하여 명사산이라 하는 곳, 첫 목적지이다.



기대 속에 당도한 명사산! 역시 명사산이었다. 인파도 북적이고(사진). 그러나 모래 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이럴 때 글재주의 부족을 절감한다. 명사산의 곡선미는 모든 것을 잊게 한다. 햇살 뒤로 보이는 명사산은 신비



로움마저 던져준다 (사진). 다른 이들은 막고굴 때문에 둔황을 찾는다면, 필자가 다시 이곳을 찾는다면 분명 명사산을 보기 위함이다.

후에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는 송씨를 따라서 월아천으로 향하였다. 월아천은 명사산의 모래 언덕으로 둘러 쌓인 작은

오아시스이며 마치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 월아천 가는 길에 얻은 것은 낙타풀 꽃이 만발한 것을 본 것이다(사진). 그저 빨리 자유 시간을 얻어서 명사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뿐이다. 오늘 따라 왜 이리 가이드가 뜸을 들이는지?

드디어 1시간 반 후에 만나기로 하고 자유시간이다. 명사산을 오르는 데는 돈이 필요하

다. 능선까지 여러 개의 계단을 만들었고 그 사용료가 20원이다. 물론 그냥 오를 수 있으나, 힘들 것 같다. 이론 없이 계단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사실 필자는 모래에 도전하고 싶었으나 후에 탁월한 선택임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작은 좋았다. 앞에 출발한 권교수님을 눈치 없이 추월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작은 능선 하나를 넘고 다음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고 2,3분이나 흘렀을 까? 올라온 저 뒤를 내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진짜 땀과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아마 술씨 아저씨가 앞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필자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술씨 아저씨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내려갈 생각을 하니 하늘이 더 노랗게 되는 것 같다. 약간의 힘이라도 더 소모하게 하는 대상에겐 화가 났다. 그냥 모든 것이 귀찮았다. 그러나 순간순간 아래에 보이는 월아천의





모습은 여전히 나를 흥분시키고 있다(사진). 점차 초승달 모양의 오아시스가 잘 드러난다. 그러는 사이 능선에 이르렀다. 좀처럼 어디 누군가에게 뒤져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능선을 따라 이동하여 사구의 날카로운 능선 모양이 다 구겨졌지만, 신



기하게도 아침에는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다한다. 밤새 바람으로 모래가 이동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능선을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매일 그 자리에 같은 모양의 능선이 만든 것이다. 능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능선의 모양이 지도의 도로 같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로망처럼 능선이 뻗어 있을 것이다. 모래산이 끝날 때 까지.

어느새 뒤에 처지셨던 권교수님도 올라오셨다. 일생에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은 진정 처음인 듯싶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일생을 평야 연구에 힘을 쏟으신 분이 급사면의 산, 그것도 모래 산을 오르려니 당연한 것이다. 한 참 더 젊은 필자도 이리 헤메고 있는데. 능선에서 밑을 내려다보니 하산 할 것이 캄캄하다.

하산 걱정은 나중에 미루고, 능선에 앉아있으니 그냥 무아지경이다. 멀리 지평사 가까이로 둔황 시내도 보이고, 무엇보다 가까이에 보이는 오아시스의 경치가 숨을 멎게 할 정도이다. 중층운이 얇게 끼어있어서 작렬하는 사막의 햇별은 느낄 수 없지만 이정도로만도 충분하다. 그러면야 금상첨화이겠지만. 아무튼 내 생애에 다시 이런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모래산을 볼 수 있을 까?(사진)



올라올 때 모래스키 값까지 포함이라곤 하지만 그 장소까지 찾아갈 엄두가 안 난다. 많은 이들은 모래스키를 타고 내려간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고민 끝에 단거리를 택하여 하산하기로 하였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도전하였다. 급사면을 보고 모두 겁내는 것 같았다. 한 명을 내려 보냈다. 일단 가보라고. 적중이었다. 모래라 발이 빠지긴 하지만 눈처럼 미끄러지지 않는 않았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사진). 누구나 침뽕침뽕 걸어 내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도전한 사람이 힘을 쓰게 마련이다. 그리고 멋있고. 모두 겁먹어 있을 때 침뽕침뽕 간 학생이 멋있기만 하였다. 그게 아마 정지훈이었을 거다.

내려오는 길에 본 월아천은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사진). 한 글에 같은 장소의 사진이 두 장은

웃긴 일이지만, 필자가 그 산꼭대기를 오른 이유는 오로지 월아천을 잡기 위해서이다. 필자는 한국에서도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필자로선 명사산에서 볼 것을 다 보았다. 이제부터는 모두 보너스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명사산이 자꾸만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낙타는 이곳의 중요한 운송 수단이다. 역시 우리 일행도 돌아오는 길에는 낙타를 이용하였다(사진). 모두 즐거워한다.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은 전동차를 탔다. 낙타는 100여 마리를 훨씬 넘어보인다. 학생들은 나이 먹은 아저씨, 아줌마가 끄는 낙타를 탄 것이 영 죄송스럽더라 말에 한 가닥 희망이란 것이 보일 듯 한다.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일행을 태운 낙타가 대상처럼 일렬로 다가올 줄 알았더니 떼거리로 나타난 것이다. 그 바람에 대학원생에게 구박만 주었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사실 어찌겠나? 말도 안 통하는데. 명사산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문을 나섰다. 그 순간에도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어찌지를 생각하면서였다.



점심 후에는 막고굴이다. 막고굴은 새로 생긴 둔황역 앞에 직선도로를 달리면 이어진다. 막고굴은 돌산과 모래산의 경계에 자리잡고 있다(사진). 그 사이에 작은 골짜기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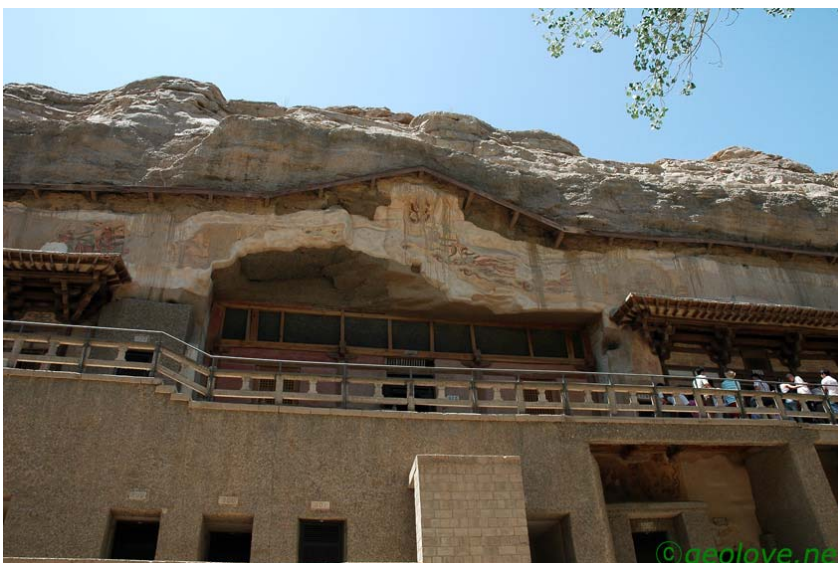


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운반되는 토사가 쌓여서 황토 언덕을 만들었고, 그 황토와 역암층을 뚫은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럴 것 같다. 당연히 그 사이의 하천은 바짝 말라 있다.

어디에 만들어진 것이든지 간에 막고굴은 신기하고 신비로웠다. 당연히 세계문화유산 급이다. 오히려 너무 마구 입장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현재 500여개 정도의 굴을 개방하고 있고, 하류쪽으로 아직도 계속 발굴 중이라고 한다(사진).



굴은 지금 보고 있는 것 외에 전실과 그 앞으로 목조 구조물이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 목조는 불에 탔고, 전실은 홍수에 씻겼다. 그러다 남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나 간혹 밖에서도 벽화를 볼 수 있다(사진). 그러나 아쉽게도 사진은 입구까지이다. 입구를 들어서면 순간 모든 가방과 카메라를 압수당하였다. 입구는 웅장하게 꾸며놓았지만 그것은 최근의 구조물이다(사진).





웬만한 홍보물에서는 이 구조물이 소개되는데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것은 사진에 담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막고굴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사진이 없으니. 다만 막고굴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등 뒤로 비파를 연주하는 것과 비천도이다. 둔황 거리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다(사진). 아마 둔황의 상징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리고 벽화속의 여인은 모두 예쁘다. 그래서 둔황 시내에서는 어디에서도 예쁜 여인을 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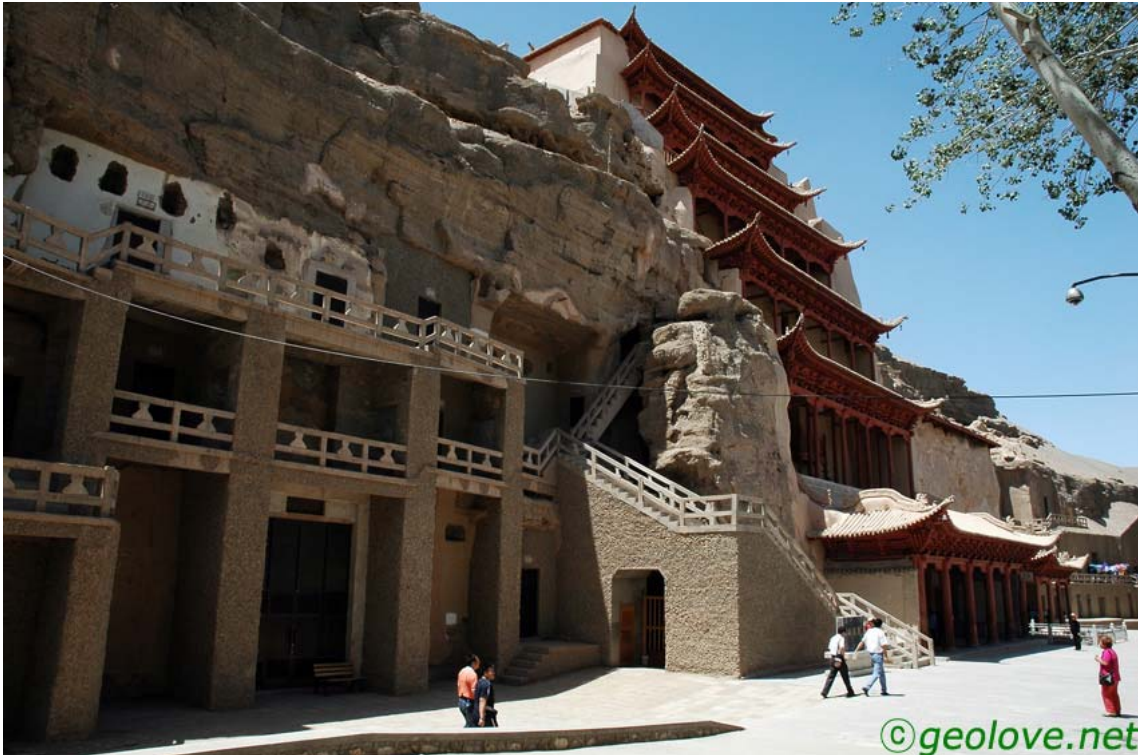
막고굴은 수나라부터 청대, 그리고 중화민국, 문화혁명 등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는 실크로드를 지나는 상인들이 성공적인 장사와 생존에 대한 감사를 기도를 올리고 보시를 하는 것이 벽화가 되고 불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 후 많이 훼손된 것을 청나라에 와서 복원하였다. 그러나 보니 벽화 속에 벽화가 나오기도 한다. 벽화가 몇 겹씩 그려져 있다. 20세기 초반

에는 다양한 나라의 도적들이 벽화와 불상을 훔쳐갔다. 그 중에는 일본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어느 나라이건간에. 문혁기에는 홍의병들에 의한 훼손이 심하였고, 회교도들에 의한 훼손도 있는 모양이다.

잠시 우리를 안내하여준 이신 선생님(막고굴 관리원 부원장)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다. 둔황에 일본말 하는 이는 1,000명인데 한국말 하는 이는 자신 포함하여 5명이라고 소개하

였다. 그 말이 실감나듯 둔황 시내에서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필자는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데 간혹 우리에게 일본말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는 열성적으로 막고굴을 소개하였다. 열성적이기 보다 뭔가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가슴으로 와 닿았다. 보여주기 어려운 곳도 보여주었다. 한국과 관련된 것은 다 보여주려 하였다. 장고가 있는 벽화가 있는 굴, 아니면 한국 사신이 있는 벽화가 있는 굴 등등.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남겨놓고 발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그간 인도한 기념품 가게에서 아무 것도 사지 않고 나온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잡하더라도 몇 개를 사줄 것을 하는 생각이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다 인생인 것을!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의 홍수로 다리가 붕괴된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런 사막에 홍수로 다리가 붕괴 되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저 설산에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물이 물리면서 홍수가 난다고 한다. 그 홍수로 다리의 가운데 교각이 붕괴된 것이다. 공사장의



인부들은 사진을 찍으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있다. 몰래 붕괴된 다리를 찍긴 하였지만. 그곳에서 본 모습도 그저 사막일 뿐이다. 그 사막 가운데로 길만 뺨 뜯려 있다. 송씨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저 고비일 뿐이다'라고 하란다.

위도가 높아서 그런지 저녁을 먹고 나



왔는데도 해가 중천이다. 햇살이 가까워 택시를 얻어 탔다. 다시 그곳이 보고 싶었다. 해가 넘어갈 무렵의 명사산은 더욱 신비롭다(사진). 택시비로 쓴 100원(13,000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좀 더 사막으로 다가가서 보니, 뭔가를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조금 전까지 보았던 나무 가꾸기보다도 더 철저하였다(사진). 우린 얼마나 행운인가? 저절로 알아서 풀이 자리주니 말이다. 이들은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훗날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큰 일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저녁 식당은 대식당이다. 그런 식당에 에어컨이 단 두 개인 것도 인상적이다. 그 식당만 안 갔더라면 샤워를 안 해도 될듯한데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40여명의 한국인을 만났다. 물론 대부분 아는 이들이다. 그 중엔 우리 학과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밖의



마당에서는 손님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공연이 한창이다(사진). 그 식당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손님을 맞는 모양이다.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왔다.

아무튼 길고 길었던 하루가 넘어간다. 이제 자고나면 양관으로 간다. 양관은 일종의 출입국관리소였던 곳이다. 명산을 뒤로 해야 하는 것이 아쉽다(사진).

